

빌 게이츠의 약속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최근 '의미 있는'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빌 게이츠가 향후 2년 내에 현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세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고문직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최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등 주요 보직을 이양한다는 계획이라 사실상의 은퇴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이번 발표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 왔고, 재단 역시 그 일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그의 말에서도 묻어나듯이 빌 게이츠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가 '세계 최고 갑부의 은퇴 선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 MS는 전세계 1위 SW기업답게(?) 반독점 소송 등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러한 MS의 중심에는 언제나 빌 게이츠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MS는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돈으로만 해결한다는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지요. 이번 은퇴 발표가 '독점기업 MS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박수칠 때 떠나는' 빌 게이츠의 모습만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

온라인게임 강국을 무색하게 만드는 성인 도박장

최근 유희가 밀집 지역 뿐 아니라 일반 주택가 단지 내에서도 'xx게임랜드', 'xx 이야기' 등의 간판을 단 사행성 PC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PC방에서는 실제 도박과 같이 현금이 오고가 그 폐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사행성PC방의 문제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도 정부에 대해 사행성PC방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는 사행성PC방으로 인해 기존의 건전한 PC방까지 싸잡아 매도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게다가 일부 사행성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들이 기존 PC방 업주를 유혹,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행성PC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피해가 막대합니다. 더욱 우려할 만한 사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온라인게임 개발 업체들이 이들 사행성PC방 프랜차이즈의 게임 제작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PC방이라는 강력한 유통망과 게임개발사들이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고 합니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로 온라인게임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면 너무 오버하는 것일까요. <수>